

## 노년기 가계를 위한 성공적인 재무설계 방안

이 선 형(국제신학대학원 교수)

### I. 노년기의 성공적인 재무설계를 위하여

성공적인 노년기를 맞기 위해서는 달성해야 할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것이다. 가족의 관계도 만족스러워야 하며, 건강상태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좋아야 할 것이고, 자식과 따로 살 것이라면 자신이 살집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달성되어야 할 목표 중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길어진 노년동안 자신의 경제적인 생활을 자립적으로 영위하는 것일 것이다. 이는 Maslow가 말하는 5가지 욕구 중 하위의 욕구에 해당하며 이 하위욕구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렇다면 인생의 마지막 단계의 노년기 가계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재무설계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성공적인 재무설계를 위해서라면 무엇을 목표로 하여 재무설계를 하여야 할까? 일반적으로 노년기의 경우 자산의 증식보다는 자신보호, 즉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고, 소득의 경우도 근로소득은 감소시키고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가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현재의 노년기 가계의 경우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다. 소득원으로서의 공적연금만 2008년도나 되어야 수혜가 가능하므로(완전연금의 경우), 자신의 근로소득이나 자식의 원조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이선형(2001)의 연구에 의하면 1999년 기준으로 독신노인의 경우 약 51만원정도, 부부노인일 경우 84만원 정도가 표준생계를 위해 필요하며 최저생계를 위해서는 독신노인일 경우 25만원, 부부노인일 경우 42만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03년도 가격으로 환산하면 표준생계 독신, 부부, 이다. 이는 비노인의 약 81% 정도로 생계비는 감소하였다. 또한 소득액의 절대적 액수가 만족할만한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너무 적다.

더군다나 은퇴연령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으며, 생활수준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노인의 생활과 의식에 대한 국제조사에서 한미일독 4개국을 비교한 결과 원하는 은퇴연령과 실제 은퇴연령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55세 이전에 은퇴를 원하는 경우는 남성의 경우 3.5%, 여성의 경우 19.3%에 불과하나 실제 은퇴는

50대 혹은 그 이전에 하는 비율이 38.3%에 이른다. 적정 은퇴연령은 남성의 경우 70대 정도라 응답하여 현실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년기 가계의 경제구조를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노년기 가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집단별 특색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본 연구는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노년기가계의 전반적인 경제구조(소득과 지출, 소득 및 지출구조)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노년기 가계의 특성별 경제구조(소득과 지출, 소득 및 지출구조)는 어떠한가?

1. 부부노인과 독신노인의 경제구조는 어떠한가
2. 소득정도에 따른 경제구조는 취업상태에 따른 경제구조는 어떠한가
3. 취업상태에 따른 경제구조는 어떠한가

이러한 연구문제분석을 위해 SAS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 II. 연구 방법

### 1. 사용 자료

본 자료는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가구소비실태조사의 2000년도 원자료이다. 이 자료는 가구소비실태조사는 1991년 처음으로 실시한 5년 단위 조사로 1996년 제2회에 이어 지난 2000년에 제3회 가구소비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가구소비실태조사는 전국 전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소득과 소비지출, 저축·부채, 가구내구재 보유현황 등 가계자산조사를 통해 국민의 생활수준과 소득·소비구조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국의 표본조사구내에 있는 약 27,000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매년 조사되는 도시가계조사와 다른 특징은 도시가계조사가 근로자소득만 공개하는 반면 이 자료는 소득과 자산, 저축, 부채 등의 자료가 공개되고 도시가계조사의 경우 2인 이상이 조사대상인 반면 이 자료는 1인가계도 포함한다. 노인의 경우 은퇴한 경우가 많고 독신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가구소비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하였다.

## 2. 연구대상 및 용어의 정의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노년기가계중 노인이 자식과 별도의 가계를 운영하고 있는 노인단독가계를 대상하였다. 왜냐하면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 그 가계의 특성상 노인이 가계에 미치는 독특한 영향을 살펴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끼리만 거주하는 부부노인가계와 독신노인가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조사 대상 중 노인이 1명이라도 포함되어 있는 노년기 가계는 24.5%였으며, 전체 노년기 가계 중 부부노인가계와 독신노인가계의 비율은 45.7%였다. 연령기준은 타 연구와의 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해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설정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노인가계의 일반적 특성

노인단독가계의 일반적 특성은 비노인가계와 큰 차이를 보였다. 노인가계의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많았으며(63.6%), 무직(퇴직포함)이 대다수이며(72.8%) 평균 18평 정도의 단독주택에(72.9%) 자가로(68.8%) 거주하고 있다. 반면 비노인가계의 경우 고졸이상이 많으며(75.8%), 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이면서(88.8%), 현재 18평 정도의 자가(48.0%) 혹은 전세(30.4%)로 단독주택(48.5%)이나 아파트(35.3%)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태의 경우 노인단독가계의 경우 연평균소득이 982만원으로 비노인가계의 2,823만원의 34.8% 정도였고, 연평균지출은 전자가 899만원, 후자가 2,212만원으로 40.6% 정도였다. 연평균저축액도 비노인가계의 69.6% 정도였다. 그러나 노인단독가계의 인구사회적 특성 및 경제적 특성은 부부노인가 독신노인가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부부노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나 주택평수, 소득 등의 지표가 독신노인보다 현저하게 좋은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은 이질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표 1> 노인가계의 일반적 특성

주택 및 기타 사항	노인단독가계			비노인가계
		부부노인	독신노인	
대상자수(N)	2,660	1,344	1,316	17,903
평균연령(세)				
남	68.2	67.9		41.0
여	70.7	63.8	70.8	38.8
교육수준(%)				
무학	32.5	11.1	54.3	0.9
초졸	31.1	29.6	32.5	9.1
중졸	11.8	18.1	5.3	14.2
고졸이상	24.7	41.2	7.8	75.8
가구유형(%)				
근로자	15.7	20.5	10.8	61.5
자영자	11.5	15.0	7.8	27.3
무직	72.8	64.4	81.4	11.2
입주형태(%)				
자가	68.8	80.7	56.5	48.0
전세	14.4	10.8	18.2	30.4
월세	8.6	5.0	12.2	17.8
기타	8.2	3.5	13.1	3.8
주택형태(%)				
단독주택	72.9	65.6	80.4	48.5
아파트	16.7	21.4	12.0	35.3
연립,다세대	7.0	8.6	5.3	13.1
기타	3.4	4.4	2.3	3.2
평균 주택 평수(평)	17.9	21.2	14.5	18.0
자동차 소유 여부(%)				
소유	6.1	10.7	1.4	34.4
미소유	93.9	89.3	98.6	65.6
평균소득 (만원)*	982	1,391	565	2,823
평균소비지출 (만원)*	899	1,253	538	2,213
연평균저축액 (만원)*	1,484	2,405	544	2,131

\* 2000년도 가격 기준

## 2. 노인가계의 경제구조

노인단독가계의 총소득은 연 1,062만원정도이며, 비노인가계의 경우 2,822만원 정도였다. 전자의 경상소득은 982만원, 비경상소득은 80만원이었으면, 후자의 경상소득은 2,682만원, 비경상소득은 140만원으로 나타났다. 경상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농림축어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구성되고 이전소득은 연금, 기타사회보장수혜금, 사적보조금으로 구성된다. 비경상소득은 퇴직금, 연금일시금, 경조금, 기

타로 구성된다. 부부노인과 독신노인을 비교하면 1391만원 565만원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시한 2인 가계 대비 1인 가계의 생계비가 60.4%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 독신노인의 소득은 40.6%밖에 되지 않는다. 이 비용은 적어도 부부노인의 60% 정도인 840만원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재 독신노인의 경제적 상태가 몹시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나타낸다.

<표 2> 노인가계의 소득

[단위 : 만원]

	노인가계	노인단독가계(A)		비노인가계(B)	(A)/(B)	
		부부노인	독신노인			
총사례수	5,817	2,660	1,344	1,316	17,903	
총소득	2,077	982	1,391	565	2,822	37.6
경상소득	1,966	902	1,281	515	2,682	36.6
비경상소득	111	80	110	50	140	57.1
가계지출	1,689	899	1,253	538	2,213	40.6
○소비지출	1,407	762	1,051	468	1,797	42.4
○비소비지출	282	137	203	70	416	32.9
가처분소득(만원)	1,795	925	1,188	495	2,406	38.4
흑자액(만원)	388	163	137	27	609	26.8
흑자율(%)	21.6	17.6	11.5	5.5	25.3	-
평균소비성향(%)	78.4	82.4	88.5	94.5	74.7	-

\* 가처분소득=총소득-비소비지출, 흑자액=가처분소득-소비지출, 흑자율=흑자액/가처분소득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

다음으로 노인가계수지를 살펴볼 수 있는 흑자율과 평균소비성향을 살펴보면, 흑자율은 비노인가계에 비해(25.3%) 낮았으며(17.6%), 평균소비성향은 높았다(비노인 74.7, 노인단독 82.4). 특히 부부노인이나 독신노인 역시 흑자율은 낮고 평균소비성향은 높았다. 이는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소득의 차원이며 다른 하나는 지출의 차원이다. 즉 이들의 소득이 생활을 영위해나가기에 절대적으로 소득이 적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고, 다른 한 가능성은 소득은 줄었으나 소비를 줄이지 못한 이유도 생각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소득원천을 재구성하여 사적소득(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소득(공적이전소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노인단독가계는 사적소득

이 83.6%, 공적소득이 16.6%로 5:1 정도의 비중이어서 사적소득에 치우쳐 있었으며 이는 부부노인과 독신노인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근로소득과 사적이전소득(대부분 자녀로부터의)에 근로소득의 비중이 약간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재산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비슷했다. 이는 비노인가계와는 현저히 다른 것으로 노년기가계의 특징은 이전소득과 자산소득의 비중이 높아지고 근로소득의 비중은 낮아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하겠다.

<표 3> 노인가계의 소득원천 구성비

		노인가계	노인단독가계(A)		비노인가계(E)	A/E	
			부부노인	독신노인			
사적소득	근로소득	73.1	38.4	40.9	31.1	90.4	42.5
	재산소득	10.9	21.4	24.0	14.8	4.4	486.4
	사적이전소득	9.1	23.8	18.2	38.3	4.3	553.5
	합계	93.1	83.6	83.1	84.1	99.1	84.4
공적소득	공적이전소득	6.9	16.6	16.9	15.7	0.9	1,844.4
합계		100.0	100.2	100.0	99.8	100.0	

다음으로 가계지출을 살펴보면 노인단독가계의 가계지출은 899만원, 소비지출 762만원, 비소비지출 137만원이다. 비노인가계의 경우 가계지출은 2,213만원, 소비지출 1,797만원, 비소비지출 416만원이다. 소비지출의 구성비는 식료품비, 주거 및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 기타소비지출의 경우 노인단독가계가 많았고,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는 비노인가계의 비중이 더 높았다. 특히 필수품이라 볼 수 있는 식료품비, 주거 및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의 합이 독신가계의 경우 62.2%로 부부노인가계의 54.4% 보다 높고 비노인가계의 39.1%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노년기가 되면 비소비지출이 감소한다고 하나 가계지출에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노인가계 16.7%, 노인단독가계 15.3%, 부부노인 16.1%, 독신노인 13.0%, 비노인가계 18.8%로 나타나 비노인가계와 큰 차이가 없었다. 비소비지출에서 타가계로 송금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정도이므로 이 부분에서의 지출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표 4> 노인가계별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의 비중

[단위 : 만원]

	노인가계	노인단독가계(A)			비노인가계(B)
		노인단독가계(A)	노인단독가계(A)		
			부부노인	독신노인	
○ 소비지출	100.0	100.0	100.0	100.0	100.0
- 식료품비	27.2	29.1	28.7	30.1	24.8
- 주거및광열수도비	11.8	16.4	14.7	20.3	10.3
- 가구집기가사용품비	4.6	4.9	5.4	3.6	5.1
- 피복 및 신발비	5.2	5.0	5.1	4.5	5.8
- 보건의료비	7.0	11.2	11.0	11.8	4.0
- 교육비	7.8	0.1	0.0	0.1	13.0
- 교양오락비	4.1	2.9	3.2	2.4	5.1
- 교통통신비	15.4	10.8	11.4	9.2	17.7
- 기타소비지출	16.8	19.7	20.5	17.9	14.2
○ 비소비지출	100.0	100.0	100.0	100.1	100.0
- 조세	27.7	21.2	23.2	15.7	24.8
- 연금기여금	11.3	3.6	3.4	2.9	14.7
- 사회보험금	11.3	8.8	8.4	8.6	11.3
- 지급이자	21.6	16.8	15.8	20.0	20.2
- 송금보조금	28.4	50.4	49.3	52.9	27.1

생애주기가설의 관점으로 노년가계를 바라보면, 노년기의 경우 소비지출이 소득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실증연구에서는 이를 반드시 지지하지 않는다(Danziger, Van Der Gaag, Smolensky 등 재인용). 이러한 점을 살펴보기 위해 노인단독가계를 대상으로 각 연령별 소득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와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의 57.4%의 가계는 소득이 지출보다 더 많아 흑자가계였으며, 42.0%는 적자가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표 5> 연령별 총소득과 가계지출의 차이[단위 :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전체
N	130	125	166	157	166	178	167	144	143	131	121	132	115	88	110	85	81	74	62	64	220	2660
+	61.5	56.0	55.4	64.3	63.2	57.9	65.3	66.0	55.2	52.7	61.2	54.5	62.6	42.0	53.6	36.5	53.1	62.2	64.5	57.8	54.5	57.4
-	37.7	44.0	44.6	35.7	36.8	42.1	34.7	34.0	44.8	47.3	38.8	45.5	37.4	58.0	46.4	63.5	46.9	37.8	35.5	42.2	45.5	42.0
0	0.8	0.0	0.6	0.0	0.0	1.1	0.0	0.0	0.0	2.3	0.0	0.0	0.0	0.0	0.0	1.2	0.0	1.3	1.6	1.6	1.8	0.6

+ : 총소득-총지출>0 ; - : 총소득-총지출<0; 0 : 총소득-총지출=0

### 3. 노인특성별 경제구조

#### (1) 소득계층별 경제구조

노인집단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층을 나누기 위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였다. 정부에서는 매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발표하는데, 2000년도 발표된 1인 가구의 경우 월 324,011원이며 2인가구의 경우 월 536,614원이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한 것을 기준으로 그 미만인 것과 그 이상~2배수미만, 2~3배수 미만, 3~4배수 미만의 4집단으로 나누었다<sup>1)</sup>. 이를 편의상 하위계층, 중하위계층, 중상위계층, 상위계층이라 하였으며,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노인가계의 소득계층별 소득액

[단위 : 만원]

	Poverty ≤ 1(하)		1-1.99(중하)		2-2.99(중상)		3-3.99(상)		하/상	
	독신노인	부부노인	독신노인	부부노인	독신노인	부부노인	독신노인	부부노인	독신노인	부부노인
총 사례수(%)	607 (46.1)	342 (25.5)	481 (36.6)	500 (37.2)	129 (9.8)	242 (18.0)	99 (7.5)	260 (19.3)	-	-
총소득	267	451	536	933	913	1,567	2,076	3,343	12.9	13.5
경상소득	242	422	500	879	863	1,492	1,814	2,986	13.3	14.1
비경상소득	25	29	36	54	50	76	262	357	9.5	8.1
가계지출	332	715	509	964	760	1,421	1,657	2,358	20.0	13.5
○ 소비지출	319	650	472	861	651	1,219	1,125	1,783	13.3	14.1
○ 비소비지출	13	66	37	103	109	202	533	575	9.5	8.1
가처분소득(만원)	254	385	499	830	804	1,365	1,543	2,768	16.5	13.9
흑자액(만원)	-65	-199	27	-31	153	146	418	985	-15.6	-20.2
흑자율(%)	-25.6	-51.7	5.4	-3.7	19.0	10.7	27.1	35.6	-	-
평균소비성향(%)	125.6	168.8	94.6	103.7	81.0	89.3	72.9	64.4	-	-

총소득은 하위계층은 독신 267만원, 부부 451만원이었고, 중하는 독신 536만원, 부부 933만원, 중상은 독신 863만원, 부부 1492만원, 상은 독신 1814만원, 부부 2986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위계층의 소득은 상위계층의 소득의 독신은 12.9%, 부부는 13.5%에 불과했다.

연간소득이 254만원(부부 385만원)이라면 한 달에 평균소득이 21만원(32만원) 정도라는 의미인데 이 소득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생계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더군다나 이 계층에 속하는 비율이 독신 46.1%, 부부 25.5%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는 전 가계를 대상으로 하고 노인가계가 되면 필요생계비도 적

1) 4집단으로 나눈 이유는 3집단으로 나누면 가장 높은 소득집단의 특징이 잘 나타나지 않았으며, 5집단나눌 경우 포함되는 사례수가 너무 적어지기 때문이다.



어진다고 가정할 수도 있으나 전체 노인가계의 빈곤성향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국민연금이 성숙되어 많은 노인들이 혜택의 대상이 되기 전까지는 지속되리라고 본다.

다음으로 가계지출을 살펴보면 하위계층의 가계지출은 독신노인 연간 332만원, 부부노인 715만원 정도였으며, 상위계층노인은 독신노인 연간 1657만원, 부부노인 2358만원 정도였다. 소비지출의 비중은 다음 표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비소비지출의 경우 하층일수록 적고 상층일수록 많았으며 부부노인일수록 송금보조금에 지출하는 액수가 많았다. 가처분소득 및 흑자액을 살펴보니 하위계층의 경우 소득보다 지출이 초과하고 있다.

소득을 소득원천별 구성비로 살펴보았는데, 소득이 낮은 집단은 사적소득과 공적소득의 비중이 독신 7:3 부부 9:1 정도였으며, 소득이 높은 집단의 경우 역시 독신의 경우 7:1정도, 부부의 경우 4:1정도 였다. 공적이전소득이 높은 비중인 것은 하위계층의 독신노인, 중상 및 상위의 부부노인이었다. 이는 물론 전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일 것이며, 후자의 경우 공적연금에 의한 것으로 원인은 다르다. 소득계층의 상위집단으로 갈수록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의 비중은 높아지고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은 낮아진다.

<표 7> 노인가계의 소득계층별 소득원천 구성비 [단위 : 액수(%)]

		Poverty ≤1		1-1.99		2-2.99		3-3.99	
		독신노인	부부노인	독신노인	부부노인	독신노인	부부노인	독신노인	부부노인
사적소득	근로소득	12.4	24.2	28.6	36.1	39.0	44.4	45.3	45.2
	재산소득	7.9	19.2	12.6	21.5	20.4	20.8	20.0	27.8
	사적이전소득	51.2	46.2	46.8	30.3	29.9	13.9	21.8	8.1
	합계	71.5	89.6	88.0	87.8	89.3	79.0	87.0	81.2
공적소득	공적이전소득	28.9	10.4	12.0	12.2	10.7	21.0	13.0	18.8
합 계		100.4	100.0	100.0	100.1	100.0	100.1	100.1	99.9

주 :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해서 계산했으므로 합계가 약간 틀림.

다음으로 소득계층별 가계 및 소비지출 구성비를 살펴보고자 한다.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의 비중을 볼 때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비소비지출의 비중이 커졌다. 이는 상당액수가 송금보조금에 해당하였다. 소비지출 패턴은 상, 중하, 중상, 하계층의 소비지출의 패턴 차이는 크지는 않았다. 단지 상층으로 갈수록 소비지출보다 비소비지출의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식료품, 주거 및 광열수도비, 보

건의료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이에의 지출보다는 교통통신비, 교양오락비, 기타소비지출에로의 지출이 높았다. 이는 교육비에로의 지출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비노인가계의 지출패턴과 아주 유사했다.

<표 8> 노인가계의 소득계층별 가계 및 소비지출 구성비

	Poverty ≤ 1		1-1.99		2-2.99		3-3.99	
	독신노인	부부노인	독신노인	부부노인	독신노인	부부노인	독신노인	부부노인
<b>가계지출</b>	100.0	100.1	100.0	100.0	100.0	100.0	100.1	100.0
○ 소비지출	96.1	90.9	92.7	89.3	85.7	85.8	67.9	75.6
○ 비소비지출	3.9	9.2	7.3	10.7	14.3	14.2	32.2	24.4
<b>○ 소비지출</b>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비	34.5	34.3	30.4	32.1	28.3	27.5	18.5	23.5
주거및광열수도비	21.9	17.5	21.4	15.8	20.3	13.9	15.2	12.6
가구집기가사용품비	3.4	3.5	4.0	4.0	3.5	4.9	3.1	7.8
피복 및 신발비	4.1	3.8	4.7	4.5	5.7	5.7	4.4	6.2
보건의료비	11.6	12.6	11.7	11.6	9.7	12.4	14.0	8.5
교육비	0.2	0.3	0.0	0.1	0.0	0.2	0.0	0.0
교양오락비	1.6	2.3	2.5	2.7	2.2	3.3	3.1	4.2
교통통신비	7.8	8.2	8.3	10.5	10.3	11.5	12.5	13.7
기타소비지출	14.7	17.4	16.9	18.7	20.3	20.7	23.7	23.4
<b>○ 비소비지출</b>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조세	23.1	19.7	16.2	21.4	15.6	21.8	15.9	24.5
연금기여금	2.3	1.5	0.8	3.9	3.7	4.0	2.8	3.7
사회보험금	30.8	15.2	13.5	13.6	8.3	9.4	3.8	5.2
지급이자	30.8	25.8	27.0	24.3	20.2	24.8	15.4	8.5
송금보조금	15.4	37.9	43.2	36.9	52.3	40.6	61.9	58.1

\* 가처분소득=총소득-비소비지출, 흑자액=가처분소득-소비지출, 흑자율=흑자액/가처분소득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

(2) 취업상태별 경제구조

다음으로는 취업노인과 비취업노인을 구분하여 소득 및 지출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총소득은 취업노인이 비취업노인의 두배정도 되었으며, 독신과 부부가계로 나누어 살펴볼때는 부부가계노인에게는 그 차가 줄어들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농림축어업소득은 취업노인이 많았으며, 이전소득과 재산소득은 비취업노인이 많았다.

가계소비지출의 경우 취업노인이 비취업노인에 비해 더 많이 지출하고 있었다. 취업노인의 경우 가계지출이 1,245만원, 비취업노인이 75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취업노인이 가처분소득과 흑자액이 많으며 평균소비성향도 낮았다. 비취업노인의 경우 공통적으로 평균소비성향은 거의 100에 가까웠다.

<표 9> 취업상태별 노인가계의 소득

[단위 : 만원]

	노인단독가계		독신가계		부부가계	
	취업노인	비취업 노인	취업노인	비취업 노인	취업노인	비취업 노인
총 사례수 (%)	800	1,860	249	1,067	551	793
총소득	1,505	757	882	491	1,787	1,116
경상소득	1,428	676	839	440	1,695	993
비경상소득	77	82	43	51	92	123
가계소비지출	1,245	751	753	488	1,467	1,104
○ 소비지출	952	681	556	447	1,130	995
○ 비소비지출	293	70	197	41	337	109
가처분소득(만원)	1,212	687	685	450	1,450	1,007
흑자액(만원)	260	6	129	3	320	12
흑자율(%)	21.5	0.9	18.8	0.7	22.1	1.2
평균소비성향(%)	78.5	99.1	81.2	99.3	77.9	98.8

소득원천별 구성비로 살펴보면 취업노인의 경우 사적소득과 공적소득의 비중이 14:1 정도이며, 비취업노인의 경우 3:1 정도였다. 이는 근로소득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런데, 비취업노인의 특성은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높고 그 다음으로 재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의 순이었다. 독신가계와 부부가계와 나누어 살펴보아도 앞의 결과와 유사한 패턴이었다. 그러나 비취업노인의 경우 사적소득과 공적소득의 비중은 독신가계가 1:4, 부부가계가 1: 2.5로 나타났다.

가계지출 및 소비지출비중으로 살펴보면 소비지출의 경우 비취업노인이 소비지출 비중이 높았고 취업노인이 비소비지출 비중이 높았다. 소비지출비중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비취업노인의 보건의료비가 높고 교통통신비와 기타소비지출의 경우 취업노인의 비중이 높았다.

<표 10> 취업상태별 노인가계의 소득원천별 구성비

		노인단독가계		독신가계		부부가계	
		취업노인	비취업 노인	취업노인	비취업 노인	취업노인	비취업 노인
사적소득	근로소득	74.3	5.5	85.7	7.0	71.8	4.3
	재산소득	13.2	28.8	3.9	19.5	15.3	34.3
	사적이전소득	5.8	40.2	5.7	52.7	5.8	32.9
	합계	93.3	74.6	95.4	79.3	92.9	71.6
공적소득	공적이전소득	6.7	25.4	4.6	20.5	7.1	28.5
합계		100.0	99.9	99.9	99.7	100.0	100.0

<표 11> 취업상태별 가계지출 및 소비지출 비중 비교

[단위 : 만원]

	노인단독가계		독신가계		부부가계	
	취업노인	비취업 노인	취업노인	비취업 노인	취업노인	비취업 노인
가계지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소비지출	76.5	90.7	73.8	91.6	77.0	90.1
○ 비소비지출	23.5	9.3	26.2	8.4	23.0	9.9
○ 소비지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식료품비	28.0	29.7	29.5	30.4	27.8	29.3
주거및광열수도비	15.0	17.2	19.8	20.6	13.9	15.2
가구집기가사용품비	4.8	4.8	3.2	3.6	5.1	5.5
피복 및 신발비	5.5	4.7	4.5	4.7	5.7	4.8
보건의료비	9.0	12.5	9.2	12.5	8.9	12.5
교육비	0	0.1	0.0	0.0	0.0	0.2
교양오락비	3.2	2.8	2.5	2.2	3.4	3.1
교통통신비	12.5	9.7	10.6	8.9	12.9	10.2
기타소비지출	22.0	18.4	20.3	17.2	22.3	19.0
○ 비소비지출						
조세	16.7	30.0	8.1	24.4	18.7	32.1
연금기여금	4.4	1.4	4.1	1.0	4.5	1.8
사회보험금	7.2	10.0	6.1	12.2	7.4	10.1
지급이자	13.0	24.3	8.6	31.7	14.2	19.3
송금보조금	58.7	35.7	73.0	29.3	54.9	37.6

## V. 노년기 재무설계를 위한 제언

노인이 자식과 별도의 가계를 운영하고 있는 가계를 소득 및 지출, 경제구조 등으로 나누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살펴본 결과 노년기 가계가 성공적인 재무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 자식에게 두 손을 다 내밀지 말라

아주 단순한 가정을 해보자. 28~57세까지 30년동안 일하고 지금 현재 부부노인이 사는 수준으로 살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할까. 본 연구에 의하면 가계지출이 연 1,253만원이고 남자 60세 기대여명이 18년, 여자 23년이다. 18년간은 부부가 함께 산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5년간은 여성혼자 산다면  $(1253만원 \times 18년) + (756만원 \times 5년) = 26,338만원$ 이 필요하다. 물가상승률도 고려하지 않고 여타 경제상황의 변화는 잠깐 접어두자. 그렇다면 이 비용을 일하는 30년으로 나누면 1년에 878만원, 즉 한 달에 약 73만원 가량이 필요하다.

과연 현실은 어떠한가? 중년기는 자녀에게 드는 교육비, 그리고 주택마련을 하다 보면 언감생심 노후대책이라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다. 도시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이

처음으로 300만원을 넘어섰으나 가계소득 증가율보다 사교육비 증가율이 7배가량 높아졌다. 지난 11월 19일 발표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사교육비 실태 및 규모분석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가구의 4가구중 1가구는 한달 소득의 30% 이상을 자녀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60년대 합계출산율 6.0명일 때 소비지출의 5.6%이던 교육비는 2001년 합계출산율 1.47인 상황에 11.3%에 이른다. 이른바 적게 낳고 집중 투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이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이렇게 집중투자한 자식이 자신들을 부양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 자식들에게는 부양해야 할 자신의 자식이 있으며 유년인구 감소로 인해 젊어져야 할 노인세대에 대한 부담은 지금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현재 중년기 가정에서 가장 큰 재무목표가 되고 있는 주택 마련과 자녀교육 대비라는 재무목표에 노후대비라는 목표가 함께 들어가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자녀에게로의 지출을 줄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노인단독가계 소득의 특징에서 이전소득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비소비지출 중에 이전지출(송금보조금)로의 지출도 많은 편이다. 노년기 재무설계 교과서에서는 노년기가 되면 비소비지출이 감소한다고 하나 우리 나라의 노인에게는 비소비지출의 감소가 뚜렷하지 않았다. 특히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송금보조금으로의 지출이 많아지는데, 이는 대부분 자녀로 이전되는 소득일 것으로 추정된다.

젊었을 때 자식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이 우리 나라 부모들의 모습이나, 안정적인 노후에 자식에게 기대서 생활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후를 위한 대비 후에 나머지를 자식에게 주는 것도 현명할 것이다. 자식을 위해 아낌없이 두 손을 다 내밀 수 있는 것이 부모이지만, 노후에 이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는 두 손 중 한 손은 자신을 위해 사용하도록 제안한다.

### ○ 원칙에 충실하라 (= 3층보장으로서의 소득체계의 마련)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소득을 다각화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노년이 되면 건강 및 생활상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적소득과 사적소득의 비중도 적절히 분산시켜 놓아야 하고, 사적소득에서도 개인(근로), 가정(사적이전), 시장(재산) 소득의 비중도 적절히 나누어 분산시켜 각각의 원천에서 일정정도의 소득이 발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노후에는 은퇴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노후의 주된 소득은 근로소득이었다. 공적연금이 성숙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앞으로도 노인의 근로소득은 중요한 원천중 하나일 것이다. 선진국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미국 13.1%, 일본 21.7%, 독일 2.7% 등으로 많은 노인들이 공적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

는 한국(29.6%)보다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지만 일정 비율의 노인은 6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근로소득의 단절시기도 결정해 두는 것이 좋다. 은퇴는 일을 완전히 그만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줄어나가거나 혹은 이전과는 다른 일로 대체하는 것이라는 인식전환도 필요하다.

현재 노인가계의 소득의 특징은 절대액수가 적고 근로소득이나 사적이전소득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소득이 적다보니 평균소비성향도 높다. 거의 근로소득이 없는 가계의 경우 거의 100에 가까운 평균소비성향을 보였다. 그만큼 근로소득에의 의존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중상층과 상위계층의 소득의 특징은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의 비중이 높아지고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또 비노인가계와 비교했을 때 차이점은 재산소득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다.

공적연금이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 유럽국가에서도 최근 연금개혁으로 인해 과거와 같은 연금에 의한 안정적 소득에만 기대지 않는다. 어쨌든 이들의 최우선 재무목표는 은퇴설계이고 이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공적연금이 성숙된다 하더라도 현재 제안하는 소득대체율 60%는 꿈의 수치이다. 앞으로 30년간 이 수치는 계속 낮아질 것이고 연금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서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가장 보수적인 관점에 의하면 30%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으므로, 추가소득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유럽이 거의 대부분 연금개혁의 홍역을 앓고 있지만 스위스는 '국가연금-기업연금-민간연금'으로 이어지는 3층 구조 사회보험시스템으로 안정적이다. 국가연금의 평균소득대체율은 35% 정도, 2층보장(근로자는 당연가입하고 자영업자는 임의가입)의 소득대체율은 25% 정도 나머지 3층보장은 사적연금 및 보험상품으로 이를 마련한다(동아일보 2003년 7월 2일자). 노후일수록 소득원을 다각화하도록 하고 여러층의 보장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 ○ 일찍부터 준비하라. Right Now!

재산소득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위해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앞에서 한 단순한 가정(assumption)에서는 노후에 2억 6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일시에 필요하다고 가정하였으나, 이는 엄밀히 말해서 23년간에 걸쳐 소비될 비용이므로 장기적으로 소비될 비용이 창출될 소득원이 있으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인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근로소득이나 자산소득, 공적연금 등을 통해 이를 충분히 미리 준비한다면 이 비목으로의 가계지출은 일부 증가하겠지만 증가한 비용보다 노후에는 훨씬 적은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이를 강조한 내용이 네오머니

(www.neomoney.co.kr)에 있어 이를 인용해보고자 한다.

이 두 표는 얼마나 노후준비를 일찍 하느냐에 따라 축적할 수 있는 재산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왼쪽표의 경우 남들보다 일찍 31세부터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하였고 해마다 6년간 200만원 적립을 목표로 하여 모으고 있었다. 오른쪽표의 경우 30대 후반인 38세가 되어 200만원씩을 62세까지 적립했을 경우이다. 궁극적으로 볼 때 왼쪽의 경우 7년 일찍 시작하여 총 1,200만원으로 62세에 얻을 수 있는 금액이, 25년간 매년 2백만원, 즉 5,000만원을 투자한 경우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노후준비를 빨리 할수록 그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 이를 위해서 네오머니에서는 지금부터 월수입의 15~20%는 연금저축과 같은 장기저축을 이용하여 은퇴를 위한 준비를 시작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6년동안 매년 200만원씩 투자한 경우

나이	투자금액	연말의 가치
31	2,000,000	2,240,000
32	2,000,000	4,479,000
33	2,000,000	7,559,000
34	2,000,000	10,706,000
35	2,000,000	14,230,000
36	2,000,000	18,178,000
.	.	.
.	.	.
.	.	.
62		346,111,000

매년 200만원씩 투자한 경우

나이	투자금액	연말의 가치
38	2,000,000	2,240,000
39	2,000,000	4,479,000
40	2,000,000	7,559,000
41	2,000,000	10,706,000
42	2,000,000	14,230,000
43	2,000,000	18,178,000
.	2,000,000	.
.	2,000,000	.
.	2,000,000	.
62	2,000,000	336,748,000

<출처> 네오머니 홈페이지 (<http://www.neomoney.co.kr>)

○ 생활규모를 절대적으로 축소하라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모습을 그려보자. 내년엔 은퇴를 앞둔 어느 가장이 자신에게 남은 자산을 돌아보고 있다. 32평 아파트 한채와 각종 적금 및 예금 등 금융자산이 많아야 1억원 정도, 국민연금으로 받게 되는 금액은 50만원 정도,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몇천만원 되는 퇴직금. 그리고 10년 전에는 거금을 주고 샀지만 지금은 남은 차 한 대. 그래도 이 정도의 상황이면 지금의 노인에 비하면 아주 성공적이다. 그러나 50대 후반 60대 초반에 퇴직하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교육 및 출가시켜야 할 자녀가 있고, 퇴직 후에도 웅색한 삶을 원하지는 않는다.

본 연구대상인 노인단독가계는 이러한 장미빛 그림과는 거리가 멀다. 평균 21평 정도의 단독주택에(65.6%), 자가로(80.7%) 거주하고 있으며 연평균소득이 1391만원 정도이다. 약 10% 정도의 노인만이 소형차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인인 가계가 지출하는 가계지출만 연간 1,253만원에 이른다. 우리사회의 평균적인 사람이 현재 노인이 지출하는 비용을 가지고 계산한다 하더라도 국민연금과 금융자산을 통한 이자소득만으로는 이들은 10년도 지나지 않아 적자가계를 맞이할 것이다. 여기에 해외여행이나 자녀의 유학, 혹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의료비와 같은 변수가 생길 경우 이 기간은 더 단축될 것이다.

본 연구에 의하면 현재 노인단독가계의 경우 마이너스 운영을 하고 있는 가계가 전체 37.7%이며, 특히 하위계층의 독신 및 부부노인과 중하위계층의 부부노인의 경우 흑자액이 마이너스이고 평균소비성향이 100을 넘고 있다. 그 원인은 노인가계의 절대적인 소득이 모자라는 데에 기인하지만, 전체 노인단독가계의 소비성향은 82.4로 비노인가계의 74.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은 급속하게 감소하였지만 이것이 지출감소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취업노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았는데 이들의 평균소비성향도 78.5로 비노인가계보다 높았다. 기타소비지출의 경우 경조금, 용돈, 담배, 이미용 등의 목록이 포함되는데, 노인단독가계의 경우 이 지출이 전체 소비지출의 20%에 이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소득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할 사실이고, 우리의 인생은 어느 시점까지 길어질지 모른다. 방법은 지출규모 및 형태를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적자가계를 면할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이 성숙되는 시기까지는 상당기간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현재와 같은 저소득 상태가 많은 노인가계의 특성에는 생활규모를 절대적으로 축소해야 하며, 필수적인 지출 이외의 지출은 감소시켜야 한다.

#### ○ 애플때를 대비하라.

소비지출 구성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노인가계의 가장 큰 지출은 식료품비(30%), 기타소비지출(19.4%), 주거및광열수도비(16.4%), 보건의료비(11.2%)이다. 비노인가계에 필수적 지출이 의식주라면 노년기가계는 의(衣)를 대체하는 것이 바로 보건이다. 건강이 안좋아질 경우 의료비의 급속한 증가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물론 그 도입의 적절성 여부는 논외로 하기로 하고, 이러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을 2007년도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보험의 혜택이 직접적으로 현재 노인이거나 혹은 가까운 미래에 노인이 될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지는 지켜보아야 한다. 이러한 보건의료비 문제는 필수적 준비라고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이선형(2001). 노인단독가계를 위한 생계비 산정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Bradshaw, J. & Mitchell, D. Morgan, J.(1987), Evaluating Adequacy: The Potential of Budget Standards, *Journal of Social Policy*, 16(2), pp. 165~181.

네오머니 홈페이지.

통계청 홈페이지.



## 노년기 가계를 위한 성공적인 재무설계 방안

이 희 숙(충북대학교 교수)

본 논문 주제의 중요성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문을 준비해 주신 국제신학대학 이선형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토론이 늘 그러하듯이 본 논문이 독자에게 주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점을 뒤로 하고, 본 논문을 발전시키는데 좀 더 보완되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논문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본 논문의 목적은 노년기 가계를 위한 성공적인 재무설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저자가 해야 할 일은 과연 성공적인 재무설계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고찰 한 다음, 이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현재 노인가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노년기 가계를 위한 성공적인 재무설계 방안을 제시하면 바람직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V. 노년기 재무설계를 위한 제언' 중 '자식에게 두 손을 다 내밀지 말라'는 손을 내민다는 의미가 도움을 청한다는 의미를 전하므로 적절하지 않은 표현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본 논문의 주요 분석 결과는 노인단독가계의 경제구조를 비노인가계와 비교하고 아울러 독신과 부부가계로 나누어 비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결과가 제언을 하는 데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제언 중 '원칙에 충실하라' 란에서 '근로소득에의 의존비중이 높다'라도 되어 있는데 본 연구를 연령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분석하였다면 근로소득 비중 측면에서 다른 제언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